

한·일·EU 업종별 임금수준 국제비교

2022. 2.

◀ 목 차 ▶

1. 한·일·EU 업종별 월 임금 분석 결과 / 1

가. 금융·보험, 전문 서비스, 정보통신업은 3대 고임금 업종,
숙박·음식점업 임금수준은 비교국 모두에서 최하위 / 2

나. 국가 간 업종별 상대적 임금수준,
우리나라 3개, EU 8개 업종이 비교국보다 높아 / 3

다. 자국 내 업종 간 임금 격차, 일본 가장 적고 한국 가장 커 / 6

라. 경제수준을 반영한 임금수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아 / 7

2. 결 론 / 10

1

한·일·EU 업종별 월 임금 분석 결과

(1) 통계 출처

- ▶ 한국 : 202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 원자료
- ▶ 일본 :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內 전산업 및 업종별 통계
- ▶ EU : 2018년 SES(Structure of Earnings Survey) 內 전산업 및 업종별 통계 기준, 직전 4년 연평균 임금 인상률(1.18%)을 적용해 2020년 업종별 임금을 추정
* SES는 4년 주기로 조사·발표, 최신자료는 2018년 기준

(2) 분석 대상 : 10인 이상 사업(기업)체 기준 비농·민간 전산업 및

한·일·EU(15개국 평균*) 간 비교 가능한 11개 업종**의 월 임금총액

- * 2022년 기준 유럽연합(EU)은 27개국이나 SES(Structure of Earnings Survey)에 임금정보가 비교적 충실한 15개국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으며, EU 15개국 평균은 각국의 월 임금과 근로자 수를 가중평균한 값임.

※ 분석대상 15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EU 탈퇴국이나 임금자료는 제공),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 한·일·EU 산업분류 상 비교 가능한 11개 업종(2020년 기준)

한국	일본	유럽 (EU)
C 제조업	E 제조업	C Manufacturing
F 건설업	D 건설업	F Construction
G 도매 및 소매업	I 도매, 소매업	G Wholesale and retail trade
J 정보통신업	G 정보통신업	J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K 금융 및 보험업	J 금융업, 보험업	K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L 부동산업	K 부동산업, 물품 임대업	L Real estate activities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L 학술 연구, 전문·기술 서비스업	M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I 숙박 및 음식점업	M 숙박업, 음식 서비스업	I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P 교육 서비스업	O 교육, 학습 지원업	P Education
H 운수 및 창고업	H 운수업, 우편업	H Transportation and storage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P 의료 복지	Q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3) 비교 기준 ;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 구매력평가(PPP) 환율 및 시장환율

- ▶ 초과급여가 제외된 월 임금총액 기준
 - * 한·일 : 정액급여(또는 소정내 급여) + (연간 특별급여/12)
 - * E U : 총 근로소득 - (Overtime Pay + Shift Pay)
- ▶ PPP환율 : 국가 간 상대적 통화가치 비교를 위해, 각국 물가수준(GDP와 그 구성 요소들의 가격, 물량 측정치 등)을 고려해 OECD가 산출(2022.1.3.추출값)
 - ※ 시장환율은 국가간 물가수준 이외의 요소(국제수지, 금리차, 정치적 불안정, 천재 지변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국가비교 시 한계가 큼(출처. OECD Purchasing Power Parities 1999 Benchmark Result, '02.1.31).
- ▶ 시장환율 : 해당연도 평균 환율(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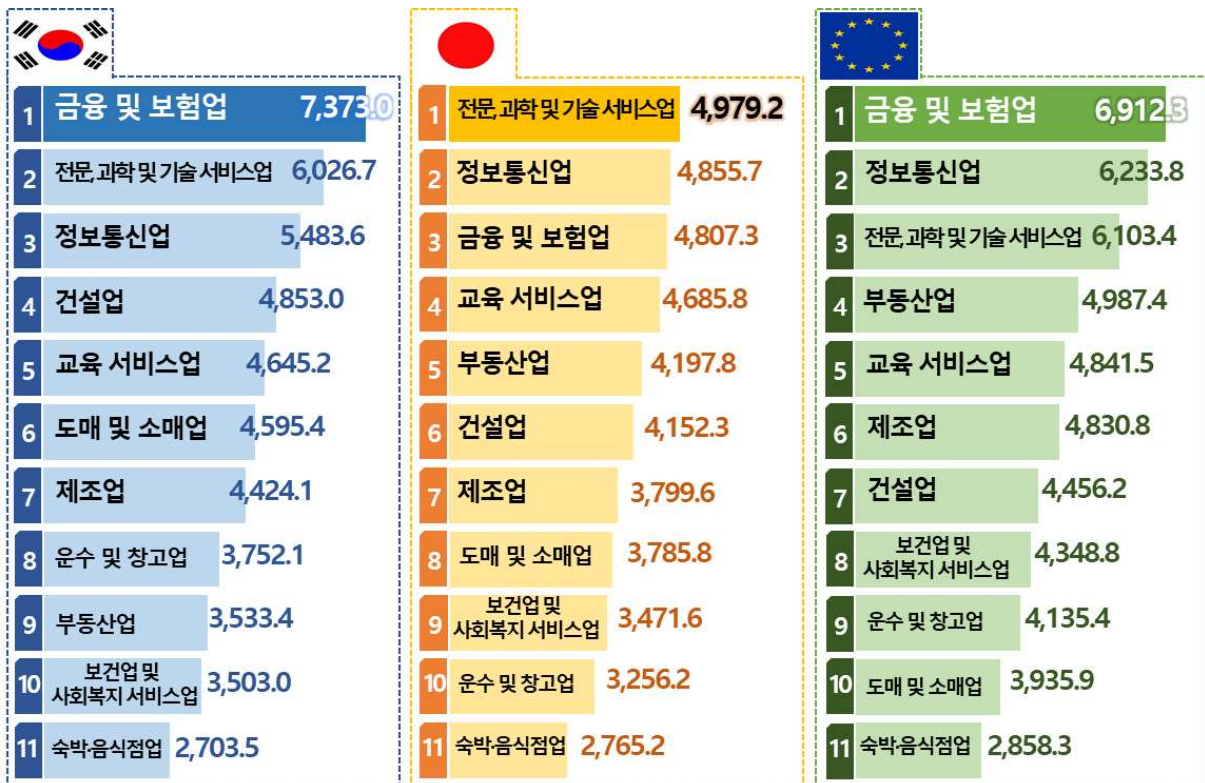
가 금융·보험, 전문 서비스, 정보통신업은 3대 고임금 업종, 숙박·음식점업 임금수준은 비교국 모두에서 최하위

□ (고임금 업종) 국가별 순위 차이는 있으나, 상대적 고부가 업종인 ▲금융·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자격인력과 과학 연구개발자 포함), ▲정보통신업(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문 IT기술 인력 포함)이 한·일·EU 공통의 3대 고임금 업종에 해당

※ 우리나라는 금융·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順, 일본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順, EU는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順

□ (저임금 업종) ▲운수 및 창고업,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비교국 모두에서 저임금 업종이었으며, 이 중 '숙박·음식점업'은 한·일·EU 공통으로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업종에 해당

< 그림 1. 한·일·EU(15개국 평균) 각국의 업종별 월 임금수준 (PPP환율 기준) >



주 : 1. 국가간 비교가능한 11개 업종명은 우리나라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의 분류기준으로 통일
 2. (韓)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日) 10인 이상 기업체 상용직, (EU) 10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 기준
 3. 활용가능한 EU 최신통계가 2018년 수치임을 고려해, 2020년 임금이 EU15개국의 최근 4년(2014~2018년) 간 연평균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하여 추정함

자료 : 고용노동부, 202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 원자료; 후생노동성,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Eurostat,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2014~2018; OECD, PPPs and exchange rates

나 국가 간 업종별 임금수준, 우리나라 3개, EU 8개 업종이 비교국보다 높아

□ (국가 간 업종별 임금수준 비교) 비교가능 11개 업종의 월 임금수준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금융·보험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3개 업종, EU는 ▲제조업, ▲정보통신업, ▲부동산업 등을 비롯해 나머지 8개 업종의 임금수준이 각각 비교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표 1. 한·일·EU(15개국 평균)의 업종별 월 임금수준 및 업종 간 수준비교 (PPP환율 기준) >
(단위 : 달러, 한국 각 업종 임금 = 100)

구분 (2020년 기준)	한국	일본		EU(15개국 평균)	
		한국 동일업종 대비		한국 동일업종 대비	
금융 및 보험업	7,373.0	4,807.3	65.2%	6,912.3	93.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026.7	4,979.2	82.6%	6,103.4	101.3
정보통신업	5,483.6	4,855.7	88.5%	6,233.8	113.7
건설업	4,853.0	4,152.3	85.6%	4,456.2	91.8
교육 서비스업	4,645.2	4,685.8	100.9%	4,841.5	104.2
도매 및 소매업	4,595.4	3,785.8	82.4%	3,935.9	85.6
제조업	4,424.1	3,799.6	85.9%	4,830.8	109.2
운수 및 창고업	3,752.1	3,256.2	86.8%	4,135.4	110.2
부동산업	3,533.4	4,197.8	118.8%	4,987.4	14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503.0	3,471.6	99.1%	4,348.8	124.1
숙박 및 음식점업	2,703.5	2,765.2	102.3%	2,858.3	105.7

- 주 : 1. 한국의 월임금 수준이 높은 업종(PPP환율 기준) 순으로 정렬
 2. 국가간 비교가능한 11개 업종명은 우리나라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의 분류기준으로 통일
 3. 비교국 대비 상대적 임금(PPP환율 기준)이 국가별로 가장 높은 업종을 음영처리, **한국**, **일본**, **EU**
 4. (韓)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日) 10인 이상 기업체 상용직, (EU) 10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 기준
 5. 활용가능한 EU 최신통계가 2018년 수치임을 고려해, 2020년 임금이 EU15개국의 최근 4년(2014~2018년) 간 연평균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하여 추정함.

자료 : 고용노동부, 202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 원자료; 후생노동성,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Eurostat,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2014~2018; OECD, PPPs and exchange rates

- **(한국 : 금융·보험업 임금 강세)** 우리나라는 '금융·보험(7,373달러)', '건설(4,853달러)', '도매·소매(4,595달러)' 업종의 월 임금수준이 비교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남(PPP환율 기준).

※ (시장환율 기준) 금융·보험업 : EU(5,264\$), 한국(5,142\$), 일본(4,557\$)
 건설업 : 일본(3,936\$), EU(3,394\$), 한국(3,385\$)
 도매·소매업 : 일본(3,589\$), 한국(3,205\$), EU(2,997\$)

- 우리나라가 강세인 ▲금융·보험, ▲건설, ▲도소매 3개 업종의 임금들은 2위 EU보다 각각 6.7%, 8.9%, 16.8%, 일본보다는 각각 53.4%, 16.9%, 21.4%나 높게 형성된 것으로 나타남.

※ (PPP환율 기준) 금융·보험업 : 한국(7,373\$), EU(6,912\$), 일본(4,807\$)
 건설업 : 한국(4,853\$), EU(4,456\$), 일본(4,152\$)
 도매·소매업 : 한국(4,595\$), EU(3,936\$), 일본(3,786\$)

- 특히 '금융·보험업'은 한·일·EU를 통틀어 모든 업종에서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는 금융업 자체의 높은 수익성에 더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 보편화된 연공형 임금체계나 강력한 노조의 영향력 등 정직적인 임금결정 구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우리나라 '숙박·음식점업(2,704달러)'은 EU(15개국 평균 2,858달러), 일본(2,765달러)보다 임금이 낮은 업종으로 나타남.

- **(유럽 : 정보통신업·제조업 등 다수 업종 임금 우위)** EU(15개국)는 '정보통신(6,234달러)', '전문·기술서비스(6,103달러)', '부동산(4,987달러)', '교육 서비스(4,842달러)', '제조(4,831달러)', '보건·사회복지서비스(4,349달러)', '운수·창고(4,135달러)', '숙박·음식점(2,858달러)'의 임금수준이 한국, 일본보다 높았음(PPP환율 기준).

※ (시장환율 기준) 정보통신업 : EU(4,747\$), 일본(4,603\$), 한국(3,82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 일본(4,720\$), EU(4,648\$), 한국(4,203\$)
 부동산업 : 일본(3,979\$), EU(3,798\$), 한국(2,464\$)
 제조업 : EU(3,679\$), 일본(3,602\$), 한국(3,086\$)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 EU(3,312\$), 일본(3,291\$), 한국(2,443\$)

운수·창고업 : EU(3,149\$), 일본(3,087\$), 한국(2,617\$)
교육 서비스업 : 일본(4,442\$), EU(3,687\$), 한국(3,240\$)
숙박·음식점업 : 일본(2,621\$), EU(2,177\$), 한국(1,886\$)

- 유럽 주요 15개국 임금수준을 평균한 EU의 경우 국가별 경제상황이 상이하야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최근 전세계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업(ICT)'과 독일, 이탈리아 등 전통적 제조강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이 유럽 지역의 임금수준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일본 : 상대적 우위 업종 無)** 일본은 '부동산업(4,198달러)'과 '숙박 및 음식점업(2,765달러)'의 월 임금총액이 우리나라보다 높았지만, EU(15개국 평균)보다는 모두 낮아, 상대적 우위업종은 없었음(PPP환율 기준).
- 쏠업종에 걸쳐 일본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1990년대 이후 지속된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로 인한 생산성 저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임금인상 최소화 전략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결과로 풀이됨.

다 자국 내 업종 간 임금 격차, 일본 가장 적고 한국 가장 커

□ 한·일·EU(15개국 평균) 국가 내 업종 간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업종 간 임금 격차)** PPP환율 기준 상·하위 업종 간 임금 격차는 우리나라가 4,669.5달러(2,703.5~7,373.0\$)로 가장 컸고, EU(15개국 평균) 4,054.1달러(2,858.3~6,912.3\$), 일본 2,214.0달러(2,765.2~4,979.2\$)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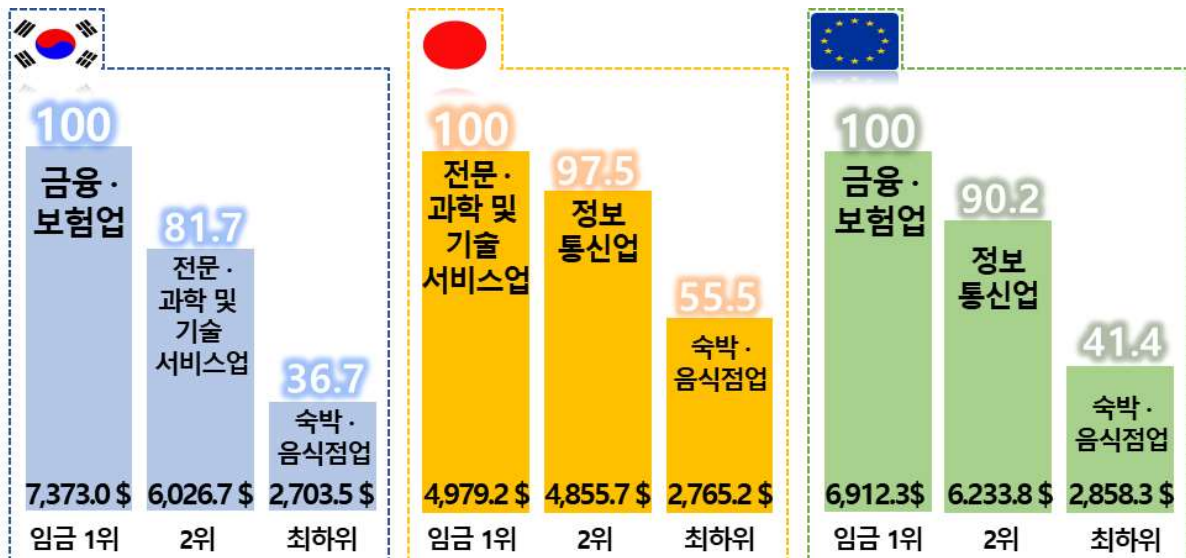
- **(각국 11위 업종 임금 ÷ 1위 업종 임금)** 숙박·음식업종(비교국 모두 임금이 가장 낮은 업종)의 임금을 각국 1위 업종 임금(=100으로 가정)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가 36.7%로 가장 격차가 컸고, EU 41.4%, 일본 55.5%로 나타남.

※ 각국 1위 업종 : (韓, EU) 금융·보험업, (日)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각국 2위 업종 임금 ÷ 1위 업종 임금)** 비교국 2위 업종들을 국가별 1위 업종 임금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81.7%, EU 90.2%, 일본 97.5% 순으로 분석되어, 1~2위 업종 간 임금 격차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컸음.

※ 각국 2위 업종 : (韓)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日, EU) 정보통신업

< 그림 2. 한·일·EU(15개국 평균) 업종 간 임금 격차 (각국 1위 업종 임금 =100) >



주 : 1. 각 국 업종별 임금은 PPP 환율 기준으로 기재

2. 활용가능한 EU 최신통계가 2018년 수치임을 고려해, 2020년 임금이 EU15개국의 최근 4년(2014~2018년) 간 연평균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하여 추정함.

자료 : 고용노동부, 202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 원자료; 후생노동성,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Eurostat,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2014~2018; OECD, PPPs and exchange rates

라 경제수준을 반영한 임금수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아

- **(한·일·EU 전산업 평균 임금수준 비교)** 구매력평가(PPP) 환율을 기준으로 한국·일본·EU의 전산업 근로자 월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4,478.7달러로 EU(15개국 평균 4,534.5달러)와 비슷하고, 일본(3,785.8달러)보다는 월등히 높았음.

< 표 2. 2020년 한·일·EU(15개국 평균) 간 비농민간 쏠산업 월 임금총액 >

구분	한국	일본	EU(15개국 평균)
자국 통화 기준	368.6만원	383.2천엔	3,024유로
PPP환율 기준	4,478.7달러	3,785.8달러	4,534.5달러
	한국 = 100	84.5	101.2

주 : 1. 비농민간전산업, 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 기준

2. (韓)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日) 10인 이상 기업체 상용직, (EU) 10인 이상 사업체 전체근로자 기준

3. 활용가능한 EU 최신통계가 2018년 수치임을 고려해, 2020년 임금이 EU15개국의 최근 4년(2014~2018년) 간 연평균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하여 추정된 값임.

자료 : 고용노동부, 202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 원자료; 후생노동성,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 Eurostat,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2014~2018; OECD, PPPs and exchange rates

- PPP환율 기준 우리나라 비농민간 전산업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가정할 때 EU(15개국 평균)는 101.2, 일본은 84.5로 나타나 각국의 물가수준 즉, 구매력을 감안한 실질 월 임금수준은 우리나라와 EU가 일본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시장환율(한국은행, 당해연도 평균환율) 기준 월 임금총액은 일본 3,588.8달러, EU 3,453.1달러, 우리나라 3,123.6달러 순

< 그림 3. 한·일·EU(15개국 평균) 간 비농민간 쏠산업 월 임금총액 (PPP환율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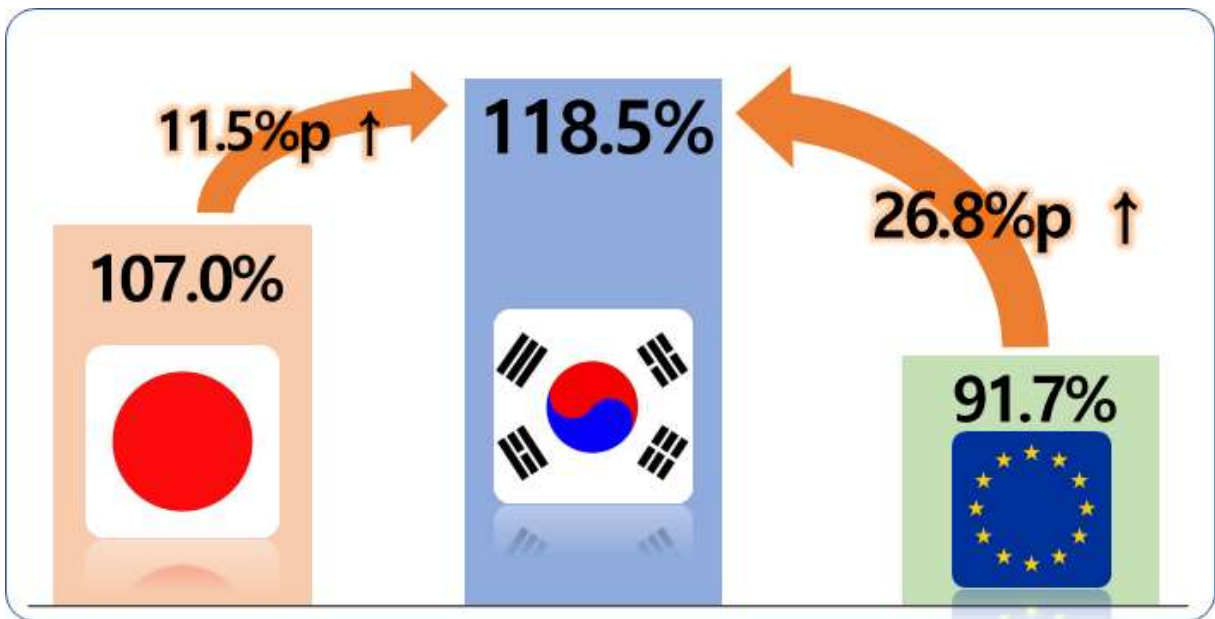


※ <표 2>의 주석 및 자료와 동일

□ **(경제수준을 반영한 임금수준 비교)** 1인당 GDP 대비 전산업 임금수준은 한국 118.5%, 일본 107.0%, EU(15개국 평균*) 91.7% 순으로 나타나, 각국의 경제 수준 대비 임금 수준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음(환율 무관).

* EU 수치인 91.7%는 조사대상 15개국의 2020년 '1인당 GDP 대비 연간 비농 전산업 임금을 단순평균한 값이며,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는 3개국(영국, 스웨덴, 덴마크)의 상대 비율은 '자국 화폐기준 1인당 GDP'에 2020년 시장환율을 적용해 도출하였음.

< 그림 4. 2020년 한·일·EU(15개국 평균) 1인당 GDP 대비 임금수준(전산업 평균) >



주 : 1. 비농민간전산업, 초과급여 제외 월 임금총액 기준(年 임금수준은 월 임금총액 × 12)

2. 활용가능한 EU 최신통계가 2018년 수치임을 고려해, 2020년 임금이 EU15개국의 최근 4년(2014~2018년) 간 연평균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하여 추정함.

자료 : 고용노동부, 202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 원자료; 후생노동성,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 Eurostat,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2014~2018; OECD Stats, Level of GDP per capita and productivity, 2020

○ 한편 업종별로 각국의 1인당 GDP 대비 임금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금융 및 보험업이 195.0%로 일본(135.9%)과 EU(137.8%)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등 임금수준 상위 3개 업종 모두 경제수준을 고려한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남.

< 표 3. 한·일·EU 1인당 GDP 대비 업종별 임금수준 비교 (환율 무관) >

구 분	한국	일본	EU(15개국 평균)
비농 전산업	118.5%	107.0%	91.7%
금융 및 보험업	195.0%	135.9%	137.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59.4%	140.8%	116.9%
정보통신업	145.1%	137.3%	120.9%
건설업	128.4%	117.4%	87.9%
교육 서비스업	122.9%	132.5%	102.4%
도매 및 소매업	121.6%	107.0%	79.6%
제조업	117.0%	107.4%	93.4%
운수 및 창고업	99.3%	92.1%	89.7%
부동산업	93.5%	118.7%	99.5%
보건업 및 사회 복지서비스업	92.7%	98.2%	85.6%
숙박 및 음식점업	71.5%	78.2%	61.9%

주 : 활용가능한 EU 최신통계가 2018년 수치임을 고려해, 2020년 각 업종별 임금이 EU15개국의 최근 4년 (2014~2018년) 간 연평균 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가정하여 추정함.

자료 : 고용노동부, 202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 원자료; 후생노동성, 2020년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 Eurostat, Structure of Earnings Survey, 2014~2018; OECD Stats, Level of GDP per capita and productivity, 2020

- ① 우리나라는 '금융·보험' 업종의 임금수준이 국내에서는 물론 한·일·EU를 통틀어 모든 업종에서 가장 높은 임금 수준을 나타냄(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 한·일·EU(15개국) 모두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업'이 대표적 고임금 업종에 해당
 - 특히 우리나라 금융·보험업(7,373달러)은 EU(15개국 평균 6,912달러)보다 6.7%, 일본(4,807달러)보다는 53.4%나 임금이 높게 형성
 - 이는 금융업 자체의 높은 수익성에 더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 보편화된 연공형 임금체계와 강력한 노조의 영향력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됨.
 - 한편 자료상 한계*로 분석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과도한 기업규모별 임금 격차를 고려하면, 임금 상위업종 대기업의 임금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 EU는 기업규모에 따른 업종별 임금 원자료를 제공하지 않음.
- ② 자국 내 업종 간 임금격차는 한국, EU, 일본 순으로 크게 나타나,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산업 특성에 따른 임금 격차가 비교적 큰 것으로 파악
- 국가내 업종 간 임금수준의 차이는 해당 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기술·자본집약도, 인적자원의 수준 및 협상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됨.
 - 국가별 임금수준 1위 업종의 임금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숙박·음식점업(비교국 모두 임금이 가장 낮은 업종)의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36.7'로 격차가 가장 컸고, EU '41.4', 일본 '55.5' 순으로 나타났으며, 1~2위 업종 간 임금격차 역시 우리나라가 비교국 가운데 가장 컸음.
- ③ 한·일·EU(15개국 평균) 월 임금총액 비교 결과, 전산업 임금수준은 우리나라와 EU가 비슷하고 일본이 가장 낮았으나(구매력평가 환율 기준), 1인당 GDP 대비 전산업 평균 임금수준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됨.
- 1인당 GDP 대비 전산업 평균임금 비중 : 한국 118.5%, 일본 107.0%, EU 91.7%

끝.